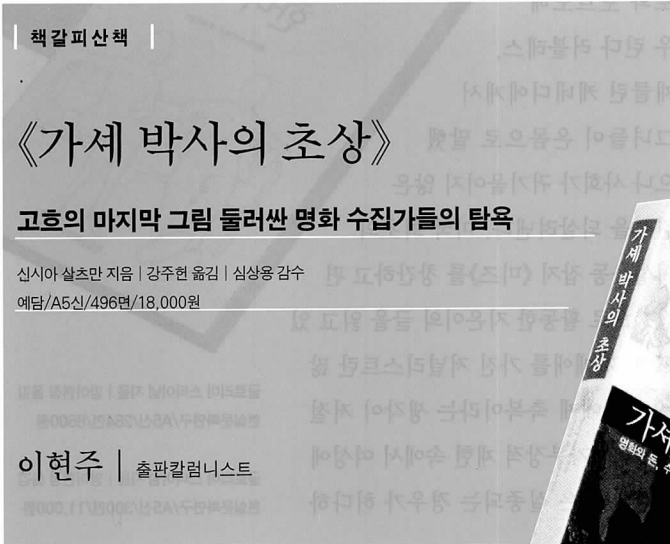


이 책은 고호가 남긴 마지막 그림인 <가세 박사의 초상>을 둘러싼 탐욕적인 수집가들의 행보를 좇는다. 재미있는 것은 그 과정이 예술의 대중화 과정과 경제발전에 따른 신흥계급의 성장, 사회구조의 변화 등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. 하지만 명화를 향한 수집가들의 탐욕은 예술가의 위대성을 자산가치로만 환산하는 현실을 반영해 씁쓸함을 남긴다.



빈센트 반 고흐를 알고 있는 이들에게 가장 강렬한 기억이라면 아마 많은 이들이 귀를 자르고 그린 자화상을 꼽을 것이다. 하지만 내게는 한 통의 편지가 더 강렬하다.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든가,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가 소개됐는데, 돈이 없으니 좀 보내달라는 내용이었다. 그 편지와 함께 실린 그림은 <감자 먹는 사람들>이 아니었던가 싶다. 그리고 그 편지는 폐결핵에 걸린 소설가 김유정이 친구에게 보낸 편지와 꼭 함께 떠오른다. 병을 치료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온갖 궁상을 떠는 것도 모자라 병이 나오면 꼭 갚겠다고 쓴 구절은 참 주접스럽다는 생각까지 하게 했다. 두 편지를 각별히 기억하는 이유는 뭐 이런 지저리 궁상이 있나 싶어 좀 경멸스러웠던 그때 감정 때문이다.

고호의 생애에 대한 잘못된 상식 바로잡아

그 무렵 나는 짧고 굵은 인생이야말로 진짜 폼나는 것이라는 생각에 빠져, 소확불량으로 배가 조금만 아파도 '아, 드디어 내가 죽을병에 걸렸구나' 하며 내심 기뻐하곤 했던 철없는 아이였다. 하지만 그 뒤 고흐가 평생 질병에 시달리며 정신병원을 들락거렸다는 것, 재능과 열정은 넘쳤지만 배운 것이 없었다는 것, 몇 번이나 자살을 시도한 자살중독자였다는 것, 그가 그린 그림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이 살아서는 거의 없었다는 것, 그래서 죽을 때까지 가난했다는 것, 하지만 지금 그의 그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고가라는 것 등을 알게 됐다. 궁상스런 편지로 스타일을 구겼던 고흐는 그 후 내게 오히려 연모의 대상이 됐다.

그런데 <가세 박사의 초상>(예담)을 읽는 동안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많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다. 우선 그의 집안이 경제적으로 여유 있던 중산층이었다는 것, 가까운 친척들이 당시 유럽 화랑계의 거목이었다는 것, 그가 교육도 충분히 받았고 꽤 명민했으며 한때 유명 화랑에서 일한 적도 있는 촉망받는 젊은이였다는 것, 질병도 간헐적으로 발작증세가 나타나는 정도였다는 것, 능력 있는 화상이었던 동생 덕분에 다른 화가들에 비해 경제적으로 비교적 덜 고통받았으며 또 화가로서 일찍부터 재능을 인정받았다는 것 등이다. 이미 알고 있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 정도였다. 그러니까 고흐에 얽힌 전설들은 모두 그 일치된 사실, 즉 그가 자살했다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셈이다. 수많은 문제작 가운데 하필 <가세 박사의 초상>이 이 책의 중심 소재가 된 것도 거기서 비롯했다. 그 그림은 고흐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불과 몇 주일 전에 완성한 마지막 초상화였기 때문이다.

미술품 유통과정에 깔린 자본주의의 검은 그림자

자살로 인해 예술의 순교자, 고통받은 천재로 신화화된 화가의 마지막 초상화가 그 후 어떻게 대접받았는가 하는 것은 확실히 출발부터 흥미진진하다. 재미있는 것은 그 과정이 예술의 대중화 과정과 경제발전에 따른 신흥계급의 성장, 사회구조의 변화 등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.

그림의 애초 주인은 고흐의 동생과 제수였지만 해리 케슬러나 파울 카시러 같은, 20세기 초 자본주의의 성장과 함께 등장한 신흥 부르주아에게 옮겨가고, 다시 대중들의 미술관으로 넘어갔다. 그리고 마침내 예술품 경매사상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천민자본주의의 상징인 한 일본인 재벌 료에이 사이트의 수중에 떨어졌다. 거기까지 이르는 1백여년의 시간 안에는 예술품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도 담겨 있다. 씩씩하게도 그것은 퇴보로 보인다. 오늘날 누가 <가세 박사의 초상>에서 멜랑콜리의 의미와 고통받는 아웃사이더이자 사회의 진단자라는 예술가의 이중적 의미를 읽을 수 있을까. 사람들은 점점 더 전문가들이 비준해준 예술가의 위대성을 자산가치로만 환산하는데만 골몰하고 있으니 말이다. 현재 일본의 어느 창고에 비밀리에 보관중이라는 <가세 박사의 초상>이 그 증거다.

예술을 경제적 가치로만 따지려는 사람들에게 예술가의 전설은 부풀려질수록 좋은 것이겠지, 책을 덮으며 이런 생각을 하니 인생을 짧고 굵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새삼스레 부끄러워졌다. 어떤 식으로든 삶이 왜곡되는 건 싫을 것 같아서다. 길고 가늘더라도 그저 우리 삶이 담백하기를. 참, 이 책 맨 첫장과 중간에 나오는 인용구의 지은이는 '윌터 벤자민'이 아닌 '발터 벤야민'이라고 써야 옳은 것이 아닌가 해서 책을 읽는 내내 걸렸다는 사실을 말해줘야겠다. ■